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 - 광법사

대성산성의 옛 못들을 돌아보고...

림금석실장은 건설된 때부터 천수백년 넘게 불교교리를 선전하면서...

우리는 옛 모습을 되찾아 우아하고 독특한 자태로 주변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는 광법사를 돌아보았다.

가려져 무척 인상깊었다. 그곳을 지나 광법사돌안에 들어서니 좌우양쪽에 동승당, 서승당이라고 불리우는 스님들이 살던 집이 마주있었고...

그것들을 차례로 돌아보고 나서 광법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에 들어섰다. 대웅전은 바깥에서는 2층으로 보였지만 안은 단층으로 되어있었다.

돌아볼수록 광법사야말로 우리 선조들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우수한 건축술에 대하여 잘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역사유적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은 한껏 부풀었다.



광법사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두개의 문을 지나게 되었다. 첫번째 문은 배집지붕에 모두단청을 한 해탈문이었는데...

광법사로 들어가는 두번째 문은 4명의 수호신들이 있는 천왕문이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4천왕상이 악귀를 밝고 노려보고있는 모습을 보니 자비로운 부처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여름철에 좋은 섭생요법

- ① 여름철에는 차를 많이 마시는것이 좋다. 차는 땀나기를 촉진하고 열을 내리우는 작용을 한다. ② 여름철에는 수영을 자주 하는것이 좋다. 수영을 하면 더위를 없앨 수 있고 호흡기계통과 심장 혈관계통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 ③ 여름철에는 일상적으로 식초를 섭취하는것이 좋다. 식초는 위산분비를 자극하고 비장과 위의 기능을 높여주며 식욕을 돋구는 양념 감이다.

식초속의 초산은 피로로 하여 생기는 젓산을 산화시켜 배출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 작용을 한다. ④ 여름철에는 맛이 쓰고 칼리움이 많이 들어있는 남새를 먹는것이 좋다. 맛이 쓴 음식물속에 들어있는 알카로이드는 열을 내리우고 더위를 없애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맛이 쓴 음식물을 먹으면 비장이 튼튼해지고 식욕이 왕성해진다.

문헌의 의미

《품성》과 《품모》

《품성》과 《품모》는 다같이 사상정신적특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품성》과 《품모》는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품성》이 사람들에게 체질화된 사상정신적특성을 특징짓는다면 《품모》는 사람들에게 체질화된 사상정신적특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그 사람의 면모를 특징짓는다.

《품모》는 사람에게 고착된 내적특성이 아니라 그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풍, 면모를 가리킨다.

《품모》는 또한 《품성》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담는다. 《품성》에는 지식과 체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다운 인간의 품모에는 높은 사상의식, 고상한 도덕과 함께 높은 문화적소양과 정서,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이 포함된다.

사람들의 품모에는 정치사상적품모와 도덕적품모가 있다. 이처럼 《품성》과 《품모》는 그 내용과 포괄범위, 표현 등에서 일련의 차이를 가진다.

속담과 뜻

◇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과 손에 묻은 병균에 의하여 생기고 반대로 화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여 생긴다는 뜻으로서 사람들이 입은 화는 말에 의하여 생긴다는 뜻으로서 화를 가리키는 교훈적으로 이르러 준다.

◇ 뒤꿈박치고 바람 잡는다. 아이리가 좋은 뒤꿈박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잡는다고 돌아친다는 뜻으로서 헛소리나 자랑 치며 돌리치는 허풍쟁이를 두고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 두귀로 듣고 한입으로 말한다. 남의 말을 두귀로 다 듣고 깊이 생각한 다음 두입으로 하거나 한입으로 하라는 뜻으로서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그것도 한입으로 하라는 것을 두고 훈계하여 이르는 말이다.

나의 몸에는 30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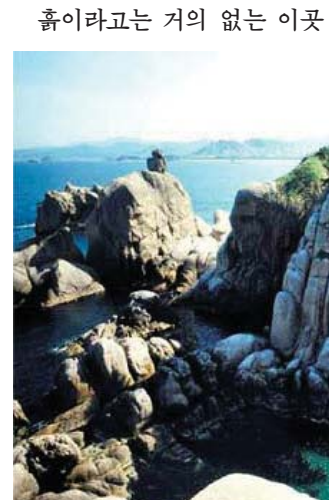
인체해부학을 배우주는 선생이 사람의 몸에는 뼈가 모두 307개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 학생이 이렇게 부정하였다. 「아닙니다. 저의 몸에는 308개가 있습니다.」

그러자 선생이 학생의 신체는 특별한 모양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아니라 오늘 아침 밥을 먹다가 저의 목에 물고기뼈가 하나 걸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해금강술도

해금강술도는 고성군 읍에서 수십km 떨어진 곳에 있다. 주변에는 크고작은 기묘한 바위들이 있고 거기에서는 바다새들이 서식하고있다. 해금강술도는 화강암이 오랜 세월 비바람과 파도에 깎이고 씻겨워 이루어진 코지 않은 바위섬이다.



현안기념물

해금강술도

사화

엄세영의 결단 (1)

그림 리성일

엄세영은 고종황제초기에 승지라는 벼슬을 하고있었다. 나이 이미 마흔이 넘어 권 줄을 바라보는 그의 끝은 마음과 칼날같은 성질은 그 누구도 당하기 어려울만큼 매섭고 단단하였다.

그는 김옥균, 박영효 등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 속심으로 정치적죽음이 바뀌어지기를 은근히 바랐지만 김옥균 등의 개혁당이 《삼일천하》를 하고갈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있었다. 일집에도 시골에서 사는 한 친척이 환양에 올라오다가 경성도 산길에서 도적들을 만나 가지고오던 돈 백냥과 명주 두벌을 송두리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적은 물이었는데 물이 다 시커런 칼날을 그에게 겨누면서 목마리를 털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우리한테 돈과 명주를 빼앗겼다고 우리를 원망마오. 우리는 사모관복을 입을 때 쓰던 비단으로 만든 벼슬아치의 모자)를 도적놈한테 가진것을 다 빼앗기고서 죽지 못해 이리짓을 하오!»

그는 이 이야기가 귀에 박힌것처럼 머리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이 학생의 신체는 특별한 모양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아니라 오늘 아침 밥을 먹다가 저의 목에 물고기뼈가 하나 걸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을에서 소나무가 억척같이 뿌리를 박고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다. 해금강술도는 해금강의 경치를 대표하는 섬으로서 풍치적으로뿐 아니라 비바람과 바다물에 의한 깎임작용, 소나무의 성장상태를 연구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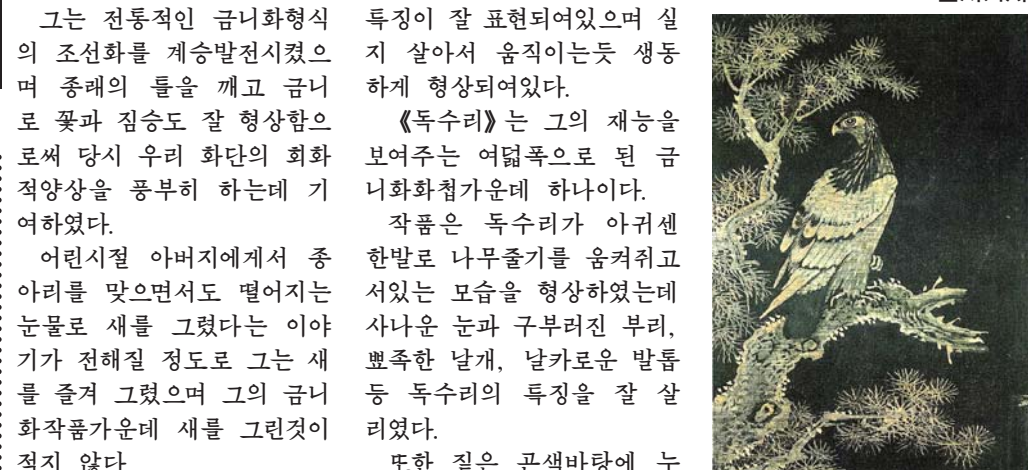
흥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곳 본사기자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 여자력기선수 리성금. Includes a photo of her and a flag.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력기 48kg급경기에서 1위.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경기선수권대회 여자력기 49kg급경기에서 3개의 동메달 쟁취.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경기대회 여자력기 49kg급경기에서 3개의 은메달 쟁취. ... 지난해 진행된 국내경기대회 여자력기경기들에서 그는

본사기자

리징의 금니화작품 - 리징은 17세기의 우수한 금니 화가이다. 그의 그림들은 한결같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새들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있으며...



본사기자

일화

옛날 황가성을 가진 재상이 시험관으로 선발되어 과거시험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러자 친구들이 자기 자식들이 돌아와라고 희물을 싸들고 찾아왔다. 뿔물도 뿔물이지만 친구들의 의리를 저버릴수 없다는 생각으로 황제는 재상이자 친구를 시험을 보게 하였다. 그는 재상이 시험관을 맡아보게 되었다. 황제상은 은근히 흠직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 자기의 덕에 그가 것처럼 기름진 벼슬에 오르게 된 것 같았다. 그라 자기 은혜를 잊지 않을것이니 앞으로 일신상의 문제는 넘려가 없을 것이라는 만측감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해 년말관리직기초때 황제상은 뜻밖에 재상반열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 룬의에 참가했던 한 친구에게 찾아가 조용히 물어보니 자기를 그대로 류임시킬

본사기자

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재부는 전라도뿐 아니라 팔도에 서도 첫째, 둘째를 다들만한 콘 부자였다.

그는 전라도 전주에 있어도 서울 조정에서 결정하는 일을 반드시 사후안으로 알곤 하였다. 백작서는 조정의 일을 오백리밖에 앉아서 손바닥에 놓고 보는것처럼 행하니 알고있을뿐 아니라 제 비위에 맞지 않으면 감사고 군수고 누구고 할것없이 그 자

조정의 상하가 모두 그러하니 긴 탄식이 나오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왕실이나 조정은 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서 행락질을 하는 그때 위 인물들만은 자기의 힘이 미치지않았을것에 버릴 작정을 하였다. 그라야 나라의 운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것이었다. (그러자면 팔도가운데서도 제일 썩어있는 전라감영부터

령을 받들고 지방의 정치와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던 립시벌로 나아가서 지방민정을 살펴 탐관오리를 적발하며 민심을 어루만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주고 돌아오라는 명을 받았다.

이야말로 엄세영에게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였다. 그는 이런 중임을 자기에게 맡기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것이었다. 엄세영은 이튿날 선유사로 서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당시의 수구당(명성황후와 그의 일가가 중심이 되어 옛 제도를 답습하며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리) 대신들의 우두머리로서 중앙과 지방의 벼슬아치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수 있는 민영익대감이 사는 죽동궁으로 인사하러 갔다.

《제가 이번 왕명을 받자와 삼남선유사로 매일 떠나갠기에 대개께 아뢰는바이옵니다.》 그는 민태감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였다. 민영익은 인사를 받고나서 나직하면서도 깊은 목소리로 《어려하겠소. 엄승주는 삼감의 명을 욕되게 하지는 아니할것을 내가 아오. 그러나 전라감영에 가보면 백작서 한사람만은 잘 보아주시 바라오.》 하고 한마디 부탁의 말을 하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엄세영은 민영익에게 이렇게 말한 후 인사를 하고 물러나었다.

이제 엄세영은 민영익에게 이렇게 말한 후 인사를 하고 물러나었다. 엄세영은 민영익에게 이렇게 말한 후 인사를 하고 물러나었다.

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든지 혹은 목을 잘라버리든지 제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 그래서 전라감사로부터 부사, 군수에 이르기까지 새로 부임되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백작서에 갈 보아야 하였다. 그같은 사실을 조사해 본 엄세영은 마음이 아팠다. 조선팔도가 모두 그러하고

본사기자